친환경농업 육성 '제자리걸음'

인증면적·농가수 2011~12년 정점이후 내림세 판로 확대·생산기술 확보 등 활성화 방안 절실

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친환경농 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 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 물고 있다. 일각에서 판로와 안정적 수익 확보 한계 등이 지적되면서 판 로 다양화 및 생산기술 확보 등 현실 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'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'실효성을 높일 전략 마련 및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.

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제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(4월 기준) 은 농가수 1171호(유기 387호·무농 약 784호), 면적 2204ha(유기 1341 호, 2018년 1098호, 2019년 1171호

ha·무농약 863ha)로, 2018년 1098호 (349호·749호)・2123ha (1300ha・823 ha) 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다.

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인 증현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속 정 체상태를 보이고 있다.

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는 2009년 1301호에서 2010년 1307호, 2011년 1352호로 정점을 찍고 2012년 1342 호, 2013년 1316호, 2014년 1195호, 2015년 1104호로 매해 감소했다. 저 농약인증이 폐지된 2016년 1144호 로 다소 증가한 이후 2017년 1099 로 1200호를 넘지 못하고 있다.

인증 면적도 2012년 2729ha에서 매해 감소해 2018년에는 2123ha에 그쳤다.

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 인증 확대 지원과 안정적 생산・가공기반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등 친환경농 업 육성분야에 386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 지난해에는 279억(GAP 지원 포함)이 투입됐다.

특히 도는 제주형 공공(친환경·무 상)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을 추 진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 산·판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. 이 를 위해 지난해 센터 건립 부지는 확 보했지만 국비(60억원 예상)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

강희만기자

■ 제주시 올 1~3월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 분석했더니…

1년새 14% 감소… 대량 배출사업장 65% ▮

1일 평균 발생량 764.7t "관광객 줄고 경기 침체 인구 제주 이탈도 영향"

코로나19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 소에다 건설경기 침체, 순이동(전입 -전출) 인구 감소세가 맞물리며 제 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관광숙박업 과 공사장 등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폭이 눈에 띄었다.

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3월 까지 석달간 하루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64.7t으로 작년 같은기간 (885.1t)에 견줘 13.6% 감소했다. 소각량이 259.1t으로 전년 동기 대 비 14.4% 감소했고, 매립량은 67.1% 감소한 23.0t으로 집계됐다.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1.9% 증가한 135.6 t. 재활용품은 8.6% 줄어든 347.0t으 로 집계됐다.

특히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300kg 이상이거나 1회 5t 이상 발생하는 대 형마트, 대형숙박시설, 공사장 등 폐 기물법에 따라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에서의 1~3월 일평균 폐기물 발생 량은 70.5t으로 작년 같은기간 (198.8t) 대비 64.5% 감소했다. 이 는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대규모 숙박업소 등 관광사 업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 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탓으로 풀 이되고 있다.

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월 제 주관광객은 125만46명으로 전년 동 기 대비 10.5% 증가했지만 2월(62만 8804명)과 3월(48만762명)엔 각각 43.4%, 58.7% 감소했다.

제주도내 연간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976.2t에서 ▷2015 년 1162.3t ▷2016년 1305.3t ▷ 2017년 1312.1t ▷2018년 1311.5t ▷ 2019년 1239.7t으로 2017년 정점

을 찍고 소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. 이는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 가, 순이동 인구가 4년 연속 연 1만 명을 웃돌던 데서 부동산시장이 얼 어붙고 순이동인구가 2018년 8853 명, 2019년 2936명으로 축소된 영향 으로 분석된다. 올들어 3월엔 전출인 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순이동인구 가 마이너스(-362명)를 기록했다.

환경부의 2017년도 전국폐기물 발 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1인당 1일 생활계 폐기물 발생 량은 1.93kg으로 전국평균 (1.01kg)을 웃돌며 가장 많았다.

제주시 관계자는 "2~3월 생활폐기 물 발생량 감소는 관광객 감소와 건 설경기 침체에 따른 관련산업 부진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"며 "특히 매립량 감소는 동복 환경자원 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지역감시 원들의 매립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 영향도 있다"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재선 성공한 민주당 오영훈·위성곤의원 21대 국회서 상임위 '간사' 맡을수 있을까

성사시 제주현안 힘 실릴 듯

21대 국회에 진출하며 재선에 성공 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(제주시 을)·위성곤(서귀포시) 국회의원이 초선 의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재 선의 영역인 상임위 간사 등 새로운 의정활동의 기회를 잡게 될 지 주목 된다.

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 각 7일과 8일 21대 국회를 이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. 양 당 차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8개 상임위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게 된다. 이 때 재선 의원의 경

우 관례에 따라 상임위 간사 및 원내 수석부대표 임명을 기대할 수 있다.

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당인 민 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향후 합당 절차에 따라 과반을 넘기는 180석을 확보하게 돼 여당 간사 및 원내수석 의 파워가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.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처 리에 있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목소 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.

일례로 제주4·3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안 등이 논의되는 소관 상임위인 행 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소위 원회 여야 간사가 소위원장을 번갈

기본적인 의사 일정부터 안건처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협상 창구 역할 을 담당한다. 국회 관계자는 "상임위원회 위원 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소위원회 간 사의 경우 그 당의 상임위 대표격의

역할을 할 정도로 간사의 권한은 막

아 맡으면서 법안 심의 과정을 주도 해왔다.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

강하다"고 말했다. 제주지역 의원이 간사 또는 원내 수석을 맡게 된다면 제주도 현안 해 결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과 국가예 산 확보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. 아 울러 의원 개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

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. 한편 20대 총선 당시 초선 의원 132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는 74명인 것으로 알려졌 국회=부미현기자

"지역신문 정부지원정책 마련을" 대신협. 광고수수료 인하·환원 등 건의

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(회장 김중 석 강원도민일보 사장, 이하 대신협) 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확산 및 장기화로 지역신문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과 관련,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과 즉각 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 와대와 국무총리실,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.

대신협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사회 적 공기(公器)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▷광고 수수료 인하 및 환원 △정부 광고비 증액 상반기 집행 ▷ 지역신문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 ▷ 법인세 등 세액 면제(감면)을 건의

했다. 이어 ▷신문 구독료 지원 ▷신 문 용지비 및 잉크비 등 원자재 구매 비용 지원 ▷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 완화 등 지역신문을 위한 정책 수립을 건의했다.

대신협은 지역신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광고, 출판 매출의 급감은 물 론 지역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대표적인 성수기인 3~5월의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연기돼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<대신협 공동취재단>

제주시 5~6월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

제주센터

제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~6월 두달동안 '상반 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' 을 운영, 체납액 54억원을 정리할 계 획이라고 6일 밝혔다.

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207억원으로 현년도분 40억원, 지난년도분 167억원이다. 이 중 자동 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 동산 관련 과징금이 125억원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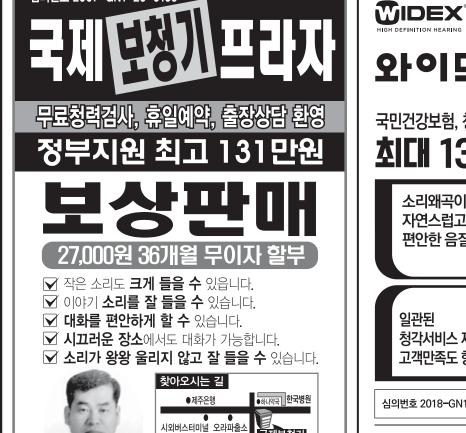
60.4%를 차지하고 있다. 세외수입 체납액의 57%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'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'도 운영 한다. 이와 함께 시는 체납액 정리기 간에 전자예금 압류, 부동산 압류,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. 문미숙기자



NAVER 그랜드보청기 🔻 🔾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

064-725-9275

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-1 (2층)



직접수리 ·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& 743-7175

제주시 서광로 190 (한국병원 건너편, 국제기계 2층)



